



◆ 꿈을 이룬 40년, 꿈을 이룰 40년

-치산녹화 40주년을 맞아 민간주도로 「산의 날」 행사 개최-

제6회 「산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원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는 오는 18일 여섯 번째 「산의 날」을 맞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산림청 주최로 개최된 지금까지의 기념식과는 달리 산림관련 전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가 맡아 민간단체 주도로 치러지며,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후원한다.

이 날 기념식은 ‘꿈을 이룬 40년, 꿈을 이룰 40년’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기념 공연과 함께 「산의 날」 유공자 포상 및 「제7회 산림문화작품전」 입상작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며,

특히 독립가, 청소년 숲 지킴이인 푸른숲선도원, 숲해설가 및 산악인 등이 산을 지키고 가꾸는 결의를 담아 산림현장을 공동으로 낭독한다.

기념식 이후에는 충남대 사회학과 박재묵 교수가 좌장을 맡아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한 산림행정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변우혁 교수와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가 각각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한 산림의 새로운 역할’과 ‘산림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림행정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열띤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행사 시작전 aT센터 앞에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숲’임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연출과 산의 웅장함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전통 모듬북 공연도 진행된다.

행사추진위원회측은 “이번 행사가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치산녹화를 이루어 낸 저력으로 새로운 꿈을 이룰 4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후원한 산림청의 서승진 청장은 “금년 「산의 날」은 산림관련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행사를 준비했다는데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단합된 노력과 열정적인 참여가 있다면 앞으로 나갈 40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의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김평기 주무관(042-481-4216)

◆ 학교숲! 1℃를 잡아라!

-제5회 학교숲의 날, 24일 울산 범서초등학교에서 개최-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유한김벌리와 공동으로 10월24일, 범서초등학교(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에서 ‘제5회 학교숲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숲! 1℃를 잡아라!’를 주제로 학교숲, 벽면·옥상녹화, 생태연못 조성 등 범서초등학교만의 특성을 살린 학교숲 조성을 통하여 학교숲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숲과 에너지재활용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시연과 학교숲 탐방 및 자연놀이,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 학교숲 시범 학교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한편 ‘학교숲의 날’은 학교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교육적 이로움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작년 경기도 포천의 추산초등학교에 이어 올해는 범서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이미라 산림청 도시숲정책팀장은 ‘학교숲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민간단체, 정부, 기업 등이 함께 추진하는 파트너십 운동’이라며, ‘학교숲은 부족한 도심에 숲을 확충하고,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과 인성개발의 장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녹색쉼터를 제공함과 함께 지구온난화의 대안으로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도시숲정책팀 이미라 팀장
(042-481-4105 / 010-2916-2090)

◆ 숲가꾸기를 통해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에 제약이 없는 일반산림 경영지 490만ha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여 온실가스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며, 대부분 방치되는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숲가꾸기를 통한 16,735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12년까지 240만ha의 면적에 대해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2단계로 2017년까지 365만ha, 3단계로 2022년까지 490만ha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숲은 2020년에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3%에 해당하는 8.7백만 탄소톤을 흡수·저장하게 될 것이다.

숲가꾸기를 통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이 있다.

숲가꾸기 산물은 목질계 바이오매스활용이 가능한데, 현재 숲가꾸기 산물은 21천ha의 면적에서 27만m³을 수집하고 있어 전체 숲가꾸기 대상면적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숲가꾸기 산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줌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수입대체효과를 가져다 주고 산불 등 재해예방에도 기여하게 된다.

숲가꾸기는 자원의 양적·질적 가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1,260명의 일자리가 제공되었고, 금년에는 16,73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숲가꾸기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08년 예산은 2507억원으로 '07년 대비 26%를 증액하였다.

숲가꾸기 산물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산물 유통 센터를 늘리고, '08년예산은 147억원으로 '07년 대비 43% 확대하였다.

장기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임업기계화를 촉진

하는 등 숲가꾸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고, 화목보일러 공급과 연구개발 등의 확대를 할 계획이다.

● 문의 :산림청 숲가꾸기팀 제경영 팀장
(042-481-4186).
이용권 사무관 (042-481-4188)

◆ 임도정책,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임도 설계·시설기준 강화하고 국민속의 임도로 거듭나-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임도가 태풍·집중호우 등 큰 비에도 유실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 첫째, 현재의 “70년 홍수확률빈도”를 “100년 홍수확률빈도”로 개선하여 100년 만에 처음 오는 홍수에도 임도가 유실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과 배수시설의 규모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둘째, 아울러 100년 이상의 기간에 처음 오는 집중호우에도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계곡부를 지나는 임도에는 배수관보다 배출용량이 더욱 큰 물넘이포장이나 다리를 놓음으로써 배수관이 막혀 임도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 셋째, 임도자체 유실보다 상부 계곡에서 밀려 내려오는 토사와 나뭇가지가 막혀 임도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도 상부의 계곡에 토사·나뭇가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형사방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넷째, 당분간 벌채작업이 필요없는 산림에는 기존 임도보다 노폭(길넓이)을 30% 이상 줄인 소형 임도를 설치하여 절토·성토 등 훼손량을 줄이는 한편, 빗물이 노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수되도록 개선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임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다섯째, 지금까지는 “기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일부 구간의 경우 현장조사 부실여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의무화하여 임도의 설계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설계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내년부터 임도 사업비를 50% 대폭인상한다고 밝혔다.

(신설 : 125→188백만원/km, 구조개량 : 41→62백만원/km)

이와 아울러 임도에 대한 다양한 휴양수요에 맞추기 위해 기존 임도의 적극적 이용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첫째,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임도에 대해서 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산악스키 등 산악레포츠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둘째, 국민의 휴양수요가 많은 임도에 대해서는 산불조심기간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셋째, 임도의 위치와 특징 등 임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안내” 자료를 발간하는 등 임도가 국민의 행복한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임도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이 임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한참 가꾸어 주어야 할 청년기의 숲이 약 80%에 달하는 숲을 가꾸고 경영하는 기반시설로 활용도를 높이고 산불진화 진입로로, 산간오지의 마을을 이어주는 교통로로, 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산악스키 등 산악레포츠의 휴양공간으로 이용되는 임도의 활용도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산림청 치산팀 김중선 팀장
(042-481-4270),
임하수 사무관 (042-481-4275)

◆ 숲가꾸기, 수질정화 2배 부유물질 농도 4배 개선효과

-20일 산림청, 수자원공사 댐유역 수원함양 위한 숲가꾸기 공동연구 협약체결 -

산림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숲가꾸기가 댐의 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효과를 공동 연구한 결과 댐유역에 숲가꾸기를 실시했을 경우 댐에 유입되는 물의 수질과 부유물질 농도를 대폭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과 수자원공사가 '02년부터 '06년까지 대곡댐, 탐진댐(전남 장흥 소재) 유역에서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댐에 유입되는 물의 탁도와 부유물질 농도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홍수시 산림내 계류수의 탁도는 숲가꾸기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2배정도 깨끗한 물을 흘려 보냈고, 산림내 계류수의 부유물질 농도 또한 숲가꾸기를 한 숲은 하지 않은 숲에 비해 4배 정도 낮은 부유물 농도를

보였다.

또한 숲가꾸기를 실시한 경우 그렇지 않은 숲에 비해 56.6ton/ha의 토양 저류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난해 홍수로 소양강 댐의 탁수가 큰 문제를 발생시킨 바 있어 댐유역에 대한 숲가꾸기가 댐 내 물의 탁도와 부유물질 농도를 한층 줄여줌으로써 댐의 탁수대책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과 한국수자원 공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맑은 물은 숲에서 나온다는 인식하에 댐유역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및 관련된 연구개발에 공동 노력키로 하고 11월 20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를 위한 협약식과 ‘댐유역 수원함양기능 증진 숲가꾸기의 효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댐유역 수원함양 숲가꾸기 협약식 및 심포지엄

○ 일시 : '07년 11월 20일(화) 15:00~17:20

○ 장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 문의 :산림청 숲가꾸기팀 이용권 사무관
(042-481-4188)

◆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보호 전문가 육성 추진

-산림청, 「산불조사 제도」/「산림병해충에
 찰치료사 자격제도」/「산림문화자산 지정
 제도」 등 『산림보호법』 제정 추진 -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휴식이나 레저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산불, 산림병해충과 같은 자연적, 인위적 산림훼손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이 「산불조사 제도」, 「산림병해충에찰치료사 자격제도」, 「산림문화자산 지정제도」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산림보호법」에 산불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산불원인의 과학적 규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산불조사반’을 구성, 운영하는 산불조사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종 산림병해충의 출현이 빈발하고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산림병해충에찰치료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산림병해충의 예찰·진단, 수목의 보호와 치료를 산림병해충예찰

치료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연, 역사, 문화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 산림관련 물건 및 기록 등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는 '산림문화자산 지정제도'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림보호법에 산림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산림생물자원의 다양성과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목소유자, 판매자 등에게도 감염목 제거, 수목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방제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위험도를 나타내는 산불위험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하는 것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은 오는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08년 하반기에 국회의결과 공포를 통해 '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마무리 점검 중에 있다.

김남균 산림청 기획홍보본부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각종 산림병해충 피해가 확산되고, 매년 크고 작은 산불로 애써 가꾸온 숲과 나무가 소실되는 등 우리의 소중한 산림은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이나 병해충과 같은 위협으로부터의 산림보호를 과학화 전문화하고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 보전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제정하려합니다"라고 산림보호법의 제정취지를 밝혔다.

● 문의 : 산림환경보호팀 이정용 사무관
(042-481-4246)

◆ 산림분야 사회적 일자리 현황과 창출 대책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해 2008년에는 '07년 대비, 예산은 26.7% 증가한 3,070억원을 일자리 수는 26.5% 증가한 19,439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산림청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 추이

- (06) 1,622억원, 10,662개 → (07) 2,423억원, 15,363개 → (08) 3,070억원, 19,439개

2007년 한 해 동안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국비 1,981억원을 투입하여 전문 임업기능인들에게 8,5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속도로변, 도시근교 산림, 댐유역 산림 등 공공성이 강한 산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 산림가꾸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2,833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숲해설가, 수목원코디네이터, 숲길 조사원, 산림보호강화요원등 대국민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4,030개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예산 증가 추이

- (신규 '06) 38억원, 487개 → (07) 442억원, 4,030개 → (08) 592억원, 4,909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산림가꾸기 참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숲가꾸기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6주의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전문임업기능인으로 유도하고 있다.

※ 숲가꾸기 기술교육 현황(신규자, 보수1차, 2차 교육실적)

- (05) 3,013명 → (06) 3,223명 → (07. 9) 2,941명(07 계획 4,050명)

유휴 여성 인력을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여성 참여 가능 일자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수목원코디네이터의 경우 참여 인원의 66%, 숲해설가의 경우 44%의 인원이 여성인력이다.

※ 산림청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세부 사업별 여성참여 비율(07년9월 현재)

- 숲가꾸기 사업

정책숲가꾸기 5.7%, 공공산림가꾸기 23.9%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수목원코디네이터 65.6%, 숲해설가 45.6%,

휴양림코디네이터 21.1%

숲생태관리인 15.8%, 도시녹지관리원 9.3%,

숲길조사원 7.8%, 산림보호강화사업 7.6%

여성 인력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확대를 위해 전문직 일자리 비율의 확대와 여성 호응도가 높은 사업비중을 '08년 예산에 확대 편성하였다.

※ 2008년 여성 선호 일자리 예산 편성 현황

- 숲해설가: (07) 국유림 180명 22억원 → (08)

국유림 255명 32억원 민유림 73명 6억원

- 수목원코디네이터

(07) 국유림 10명 1억원 민유림 40명 3억원→

(08) 국유림 10명 1억원 민유림 54명 5억원

또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통해 산림분야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08년에는 산지전용과 훼손의 문제해결과 산촌마을의 공동화 현상과 지역 소득사업 지원을 위해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사업과 산촌 운영 매니저를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 2008년 신규 사업 현황

- 산지전용지 모니터링(160명) : 국유림 35명, 민유림 60명

- 산촌운영매니저(60명) : 민유림 60명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분야 사회적 기업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 문의 :산림청 숲가꾸기팀 이용권 사무관 (042-481-4188)

◆ 우리 금강소나무로 광화문 복원한다.

-산림청·문화재청 광화문 복원용 소나무 벌채, 위령제 행사-

산림청(청장 서승진)과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1월 29일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서 경북궁 광화문 복원에 쓰일 국내산 금강소나무의 벌채와 위령제 행사를 갖는다.

이번에 벌채되는 금강 소나무는 직경 50~90cm의 특대재 26본이며 올해 봄부터 강원도 국유림 현장조사를 거쳐 엄선된 국내산 소나무로, 광화문의 기둥과 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금강소나무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명품 소나무로 재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세계적 우수 수종이다. 옛부터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만드는데 쓰였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인 부석사 무량수전과 봉정사 극락전 등에도 사용되었다.

두 기관은 2001년 경북궁 태원전 복원에 경북 울진 국유림의 소나무 166본을 사용한 바 있으며, 2005년 7월 「문화재용 목재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청은 생장이 우수한 소나무 집단서식지 36개소, 811ha를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 관리하며, 문화재청은 삼척 준경묘·영경묘 지역을 조림사업 하는 등 문화재용 산림관리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문화재 관리 및 산림조성 사업에 힘을 모아, 후손에게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문화재청 궁능관리과 하선웅 (042-481-4773), 산림청 목재이용팀 정병걸 (042-481-4204)

◆ 산림청, 광화문 복원용 금강소나무 공급개시

-29일, 소나무 위령제 후 첫 벌채-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11월 29일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서 서승진 산림청장, 김용하 동부지방산림청장,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궁 광화문 복원에 쓰일 국내산 금강소나무의 첫 벌채와 위령제 행사를 가졌다.

※ 초헌관 : 서승진 산림청장, 아헌관 : 유홍준 문화재청장, 종헌관 : 김용하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이 29일부터 오는 12월 중순까지 강릉, 양양지역 국유림에서 벌채하여 문화재청에 공급하는 광화문 복원용 금강소나무는 수령이 최대 250년에서 80년에 이르는, 흉고직경(사람 가슴높이에서 잰 지름) 50~90cm의 특대재 26본으로 광화문의 기둥과 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9일 첫 벌채된 금강소나무는 수령이 150년 된 것으로 시가 800여만원에 이르는 명품 소나무로 흉고직경 94cm, 높이 20m, 재적 5.2㎡ 규모이다.

한편 산림청은 문화재 복원용 국산목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유림 내 생장이 우수하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림 36개소, 811ha를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용으로 공급 가능한 소나무는 전국적으로 20만본, 9만㎡ 규모에 이른다.

● 문의 :산림청 목재이용팀 정병걸 사무관 (042-481-4204), 정책홍보팀 최관목 사무관 (042-481-4078)

